

2025년 3월 6일(수) 미국 증시 마감 – 관세 불확실성 속 급락

1. 오늘 시장 마감 현황

미국 증시 주요 지수

S&P 500

5,738.52

-1.78% ↓

나스닥

18,072.44

-2.61% ↓

다우존스

42,710.38

-0.66% ↓

미국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과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날 자동차 관세 면제 발표로 반등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다.

국채 금리·달러·금·유가

미 10년물 국채 금리

4.3%

+2.5bp ↑

금(골드)

2,192 달러

-0.1% ↓

국제 유가(WTI)

66.58 달러

+0.2% ↑

달러 인덱스

104.88

+0.23% ↑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 통상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채권 금리가 하락해야 하지만,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2. 오늘장 주요 이슈

1) 트럼프 행정부 - "4월 2일 상호 관세는 예외 없음"

-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시작된다. 면제는 없다."
-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미국 내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

자동차 관세 면제(한 달간) 발표에도 시장은 낙관적이지 않음 4월 2일부터 반도체·의약품·철강·농산물·자동차 등 대규모 관세 부과 예정

멕시코·캐나다에서 오는 많은 품목이 면제됐지만, 관세 정책 방향은 유지

전날 자동차 업종 일부 관세 면제 발표로 반등했던 시장은, 트럼프가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무역 보복을 진행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하락했다.

2) 반도체 업종 급락 - 마벨 테크놀로지 -19.8%

마벨 테크놀로지(MRVL) **-19.8%** → 실적 발표 후 폭락
AI 데이터센터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망이 보수적
증권사: "AI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
반도체 업종 전반적 하락

- 엔비디아(NVDA) **-4.2%**
- AMD(AMD) **-3.9%**
- 인텔(INTC) **-2.5%**

반도체 산업은 트럼프의 '반도체 지원법 폐지' 방침으로도 압박받고 있음

3) 경기 둔화 시그널 – 2월 고용지표 악화 조짐

- 챌린저 해고보고서: 2월 기업 해고 계획 172,200명 (전년 대비 **+245% 증가**)
- 2020년 7월(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후 최고 수준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22만1천 건 (전주 대비 2만1천 건 감소)
- 하지만 연방 공무원 해고로 인한 실업수당 청구 증가

4월 2일 관세 부과 이후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가능성 커짐

내일(3/7) 미국 2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년팜페이롤) 발표 예정 →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4) 국채 금리 상승 – "경기 둔화에도 물가 오를 가능성"

- 10년물 국채 금리 4.3% 재진입 (3일 연속 상승)
- 이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 유럽 국채 금리 상승 → 미국 채권 수요 감소
-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4bp 상승** → 2.85%
- 유럽 채권이 미국 채보보다 매력적이면서 미국 채권 매도세 유발

경기 둔화 vs. 인플레이션 우려 → 시장이 혼란스러워함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 제기됨

3.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 – 시장 충격 지속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임 트럼프 대통령 "관세는 미국 경제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정책"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러트닉·센트) "관세는 일회성 인플레이션, 연준이 개입할 필요 없음"

🗨️ 스카프 센트(재무장관) 발언: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일회성이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관세 충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미룰 가능성 높아짐

4. 증시 전망 – 시장은 어디로?

💡 "기본적인 강세장 기대감은 남아 있으나, 관세로 인해 리스크 커지는 중"

◆ 비관적 전망 증가

-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 "올해 경기 정점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 기업 실적 전망 여전히 너무 높음
- 거시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됨

◆ 강세론 유지하는 투자자도 존재

- 토리 펀드 스트레지스 탐 리
-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을 놓고 있다."
- "하지만 3월~5월에 10~15% 상승하는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증가

- "결국 트럼프 풋(시장 개입)과 연준 풋(금리 인하)이 작동할 것."

시장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가 증시의 주요 변곡점이 될 가능성 큼

5. 다음 체크 포인트 (3월 7~8일)

3월 7일 (목)

미국 비농업 고용보고서 (년팜 페이롤) 발표

- 예상: 신규고용 16만 개 (전월 14.3만 개 대비 소폭 증가)
- 실업률 예상: 4.0% 유지
- 임금 상승률 예상: +0.3% (전월 +0.5%)

 고용지표에 따라 증시 변동성 커질 가능성 높음

3월 8일 (금)

브로드컴 실적 발표 → AI 반도체 시장 흐름 가늠 가능

마무리

- 오늘 증시는 4월 2일 관세 불확실성으로 급락
- 반도체 업종 부진, 마벨 테크놀로지 -19.8% 폭락
- 경기 둔화 조짐, 금리 상승 지속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커짐
- 트럼프 행정부 관세 강경 유지 → 증시 변동성 계속될 전망

 **내일(3/7)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 증시 방향성 결정될 가능성 높음**